

신임 이사장님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 의료기기협동조합의 신임 이사장 이영규
입니다.

한국 의료기기협동조합 제15, 16, 17대 이사
장의 이임식 및 제18대 이사장 취임식에 내방
해주신 조합원 분들, 대의원 분들, 그리고
이·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화 이사장님께서 지난 12년간 한국
의료기기협동조합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이루어주신 업적을 발판으
로 우리 조합을 더욱 더 명망 있는 의료기기
산업계의 대표단체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저는 지난번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말
씀드렸듯이,

첫째로, 의료기기 조합 전문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의료기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문분야 협의회를 구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회원사 기업서비스 만족을 위한 정부 기관 대관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 정부 건의를 꾸준히 전개하여 의료기기 조합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병원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제조기업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제조기업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시험을 추진하여 제조원가 인하 및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여 회원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며, 미래에는 우리 조합에 시험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섯째로, MDR 적용에 따른 임상평가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우리 조합에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 제조물책임보험 및 입찰 계약에 따른 이행증권까지도 우리 조합에서 실행하여 조합 및 조합원사의 수익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조합원사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경영전문가 풀을 구성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전략적 협업채널을 구축하여 회원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은 조합원사 여러분과 함

게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훨씬 쉽다는 뜻이겠지요? 현재, 저 혼자만이 아니라 조합원사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소통하여 추진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를 내어 우리 조합원사 경영의 질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이재화 이사장님의 지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